

BBS 개국 10주년

신행-포교 방송 '자리매김'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온 불교방송이 올해로 1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1990년 5월1일 오전 10시, 교계의 방송 포교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불교방송은 개국초부터 '피안을 향하여' '살며 생각하며'와 같은 포교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불자들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특히 전문 MC 임성훈, 미스코리아 출신 MC 장운정, 탤런트 손창호 등 당시 스타급 불자 연예인들을 대거 진행자로 기용해 방송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또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과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등 불교계 석학들이 강의했던 '기초교리 강좌'와 '경전공부'는 안방에서도 신행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불교방송의 원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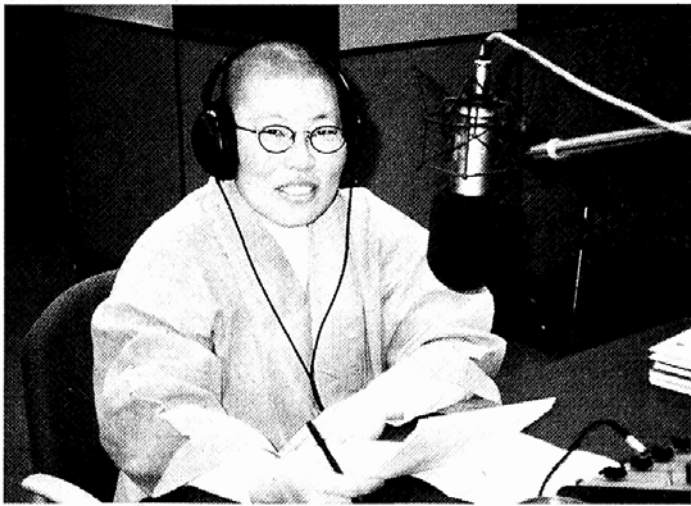
시행을 실천해 온 '거룩한 만남'은 97년에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외에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말 벗이 돼 주었던 '살며 생각하며'를 비롯해 새싹불자들의 포교 프로그램인 '봄비나 동산' 등 10여개의 프로그램들이 교계 안팎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포교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또 불자연예인 김병조씨(다시 듣고 싶은 노래)와 김용림씨(신행365일)는 돈독한 불심으로 개국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청취자들이 동고동락하는 등 전파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불교방송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95년부터는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 4개 도시에서 지방국이 아니라 세워지면서 지역 포교에도 기여하고 있다.

1997년 11월11일	조계종에서 문화공보부에 설립 신청
1998년 11월29일	불교방송출판주간위원회 결성
1998년 3월2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설립인가 취득
1998년 6월19일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1998년 8월2일	시행방송, 개시, 첫 전파 발사
1998년 5월1일	본방송 시작
1998년 12월27일	17개 지역방송국 허가 주선서 제출
1999년 2월1일	부산불교방송국 개국
1999년 3월1일	광주불교방송국 개국
1999년 11월11일	대구불교방송국 개국
1997년 1월14일	공급권형 사고 발생
1997년 4월25일	경주불교방송국 개국
1998년 3월30일	비상기구처제 출범 및 구조조정
1999년 1월8일	문화관광부 종합지정 방송 허가

히 97년 1월14일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11억여원의 대형 공금횡령사건은 불교방송의 경영상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97년 말부터는 경제한파까지 겹쳐 10억원대에 육박하던 광고 수주액이 3억원대로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이에 성낙수 사장이 취임하면서 98년 3월 30일에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정부 및 상무 직제와 1실 5국을 폐지하고 14부직제를 7개로 축소하여 팀제로 개편하는

'무명을...' '고승열전' 등 높은 청취율로 불심고취
이런 인기프로그램 중에서 '아침예배' '고승열전' '신행365일' '자비의 전화' '자한잔의 선율' '무명을 밝히고' '주간 라디오 법회' 등은 개국초부터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며 아직도 견재한 최장수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91년부터 불우한 이웃들에게 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불교방송도 10살을 먹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선 초대 장상문 사장의 작고 이후,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후임 사장으로 발탁되면서 조직내의 갈등과 인사 문제 등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불교방송은 많은 부분에서 지체 내지는 퇴행을 했으며, 그 결과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종교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특



◇개국초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불교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자 한잔의 선율' 방송현장. 사진은 저문한 음성으로 3년동안 진행을 해온 진영스님.

등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불교방송의 아픈 역사로 기억된다.

통합방송법안 곧 시행 광고시장 변화 대비해야

70% 이상을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불교방송은 현재 방송 광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심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방송공사에서 독점 관매하던 방송광고를 공·민영 양에 미디어법에서 판매하라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안을 공포했다. 이는 방송 광고시장의 자율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청취율이 일반 상업방송에 비해 떨어지는 종교방송은 광고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불교방송은, 후원회 활성화와 청취율 배가 운동 및 다양한 수익 사업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디지털 라디오 방송시대를 맞아 지방방 확장 등을 통한 가치지역 확대와 장비 교체, 인터넷 방송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공식인 사장 후임에 불심 갖고 경영 능력이 탁월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새로운 방송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일이다.
한편 불교방송은 28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국 1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가진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유승엽 禪음악 CD '노자의 사계'

불자 작곡가 유승엽씨가 오카리나 연주곡 선(禪)음악 2집 '노자의 사계'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음반은 남미와 미국, 일본 등에서 제작된 다른 음악의 4개 오카리나를 사용, 조바꿈이 불가능한 악기의 음역적 한계를 극복했다. 유씨는 "베이스 오카리나가 '음'으로, 테너 오카리나가 '양'으로 표현되어 음과 양이 조화롭게 얽혀 우주가 이뤄졌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를 음과 양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아울러 중간 중간에 우리 악기인 아쟁을 삽입해 오카리나와 아쟁의 만남도 시도해 보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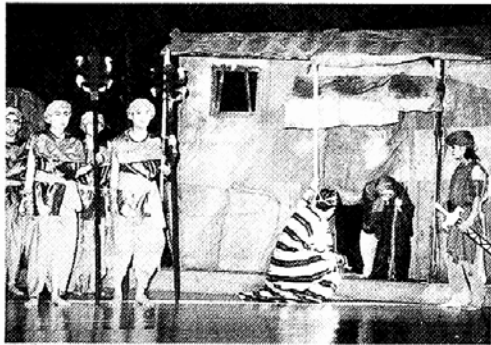
이번 음반의 '봄'에서는 시냇물소리와 새 소리가 오카리나 연주와 어우러져 맑고 경쾌한 봄을 열고,

'여름'에서는 대미 소리, '가을'에는 귀뚜라미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가 삽입돼 오카리나의 맑고 고운 음색과 조화를 이룬다.

유씨는 "이번 2집에 이어 3집에는 달마를 테마로 선 음악 작곡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작 뮤지컬 '오! 부처님' 돋보인 무대-연출 대구불자들이 '감탄'



◇'오! 부처님'은 음악적 요소의 보강이 과제로 지적됐지만, 불교소재 뮤지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처님의 출가에서 초전법륜까지의 생애를 그린 창작 뮤지컬 '오! 부처님'이 15일~17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공연해 지역 불자들에게 흥분과 감동과 갖가지 화제를 남긴채 막을 내렸다. 대구불교문화예술원이 제작한 '오! 부처님'은 대구지역의 첫 창작 불교뮤지컬이라는 점에서 화제와 기대를 모은 작품. 장엄한 무대와 화려한 의상, 레이저 빔과 같은 특수조명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오! 부처님'은 탄탄한 구성과 연출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음악보다 연극에 더 비중을 두고 종교성과 예술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자루하거나 경직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탤런트 최성훈씨와 대구불교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오늘의 영남불교' 진행자인 태경스님(정승 대전사주지)이 바라문과 출가사문으로 출연했으며, 랩과 테크노 등 대중음악을 가미해 지루하기 쉬운 종교적인 소재를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또한 아소다리가 부르는 애절한 아리아와 정반왕과 아소다리의 이중창, 합창곡 '참 나는 누구인가' 등 20여곡의 음악도 손색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부처님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제작과 극작외에 실타르타 태자역까지 1인3역을 맡은 정광진씨(법성 48)의 원력이 컸다

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연극평론가 이상원교수(대구과학대 방송연예과는)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1억원이 훨씬 넘는 창작뮤지컬을 제작한 것은 그 시도만으로도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전제하면서 "초전법륜을 펼치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보완되어야할 부분도 지적됐다. 홍보부족과 교계의 무관심으로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고, 짧은 제작기간으로 인해 연출자의 의도가 100% 반영되지 못했다. 그의 음악시선이 미비한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됐고, 합창을 녹음으로 대체한 것 등 음악적요소의 보강은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오! 부처님'은 불교소재 뮤지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 부처님'은 5월 동화사의 요청으로 영풍공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는 9월로 예정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도 초청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이윤호 기자

"생명의 나뭇 그림에 담았죠"

5월19일부터 스위스 초대전

인도부 허허당 스님

"참 생명의 자유, 구속받지 않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허허당 함운스님이 5월 19일부터 한 달간 스위스 취리히 갤러리 테스 에미도이스(Tes emidois)에서 초대전을 연다.



생명의 폭으로 잠입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 스님의 그림은 한마디로 화엄장(華嚴場)이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선승의 눈'을 주제로 선승이 바라본 생명의 세계를 그림으로 펼쳐보인다. 이미 지난 95년과 97년 국내 전시를 통해 독특한 화풍을 선보여 온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선한 마음' '만행' '오도송' 등 총 32작품을 전시한다.
'동자승을 모자이크적 방식으로 이어 표현한 제 그림은 개개의 생명이 모두 존중하고, 또한 그 생명은 큰 생명덩어리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동자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자리, 생명의 자리임을 상징하지요."
이은자 기자

문화 단상

다기문화상품 특별전

우리 다기(茶器)와 차문화의 오늘을 조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국 다기문화상품 특별전'이 5월 1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기 명품 100인전을 통해 현대 전통 도예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 다기의 역사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28일 오후 2시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02-734-1341)

현대불교문학상 시상

제5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및 부처님 오신 날 불족 시낭송회가 29일 오후 3시 조계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현대불교문학협회(회장 수완스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하림시인이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한다. (02-308-9502)

박금수씨 '사진전'

불자 사진가 박금수씨가 '제2회 문(門) 사진전'을 5월 2일~8일 마산 대우백화점 갤러리에서 연다. 박씨는 문에 담긴 다양한 문양과 상징, 풍경 등을 보여줄 예정이다. (0551-240-5000)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 판 / 값 3,500원

1.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2.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나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들!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x6 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
4x6 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증생을 피안된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이 한편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러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담,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